

野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해야”...관련 예산 3.6조 증액 추진

전날 김종인 이어 배준영 “본예산에 포함돼야”

이종배 “코로나 극복 6대 민생 예산 증액 추진”

국민의힘이 연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예산 편성 국면에서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원내지도부도 내년도 예산안에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포함시키자고 호응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앞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내년도 본예산에 코로나와 결부된 재난지원금과 경제적으로 파생될 효과를 위한 대책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12월에 본예산을 통과시키고 1월에 모양 사납게 추경 문제를 거론하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본예산을 통과시키기 전에 여러 가지 예산상 준비를 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24일 오전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종식까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내년에도 올해의 실적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당장 생계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이대로라면 ‘V자 반등’은 고사하고 2~3월과 8~9월에 이어 또다시 ‘트리플딤’ 위기에 봉착할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 바로 국회가 시급히 3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해야 될 이유”라며 “1차, 2차 재난지원금에서 증명됐듯 재난지원금의 생명은 타이밍이다. 지금 본예산에 포함해도 내년 1월 이후에야 지급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시기상조라며 민주당이 외면하겠다는 말은 일하는 국회, 민생을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할 것”이라며 “민생을 돌보겠다는 약속이 허언이 아니라면, 정부여당은 더 이상 머뭇거리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3조6000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호응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 (예산안) 증액심사에서 정책위는 코로나 극복

을 위한 6대 민생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우선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 실내체육관, PC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6000여억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 의장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중점 증액을 추진하는 6대 민생 예산에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 예산 ▲전 국민 코로나 백신 등 건강지킴이 예산 ▲긴급돌봄지원 등 아이사랑 예산 ▲약자와의 동행 예산 ▲농촌살림 예산 ▲국가헌신보담 예산 등이 포함됐다.

이 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등급에 어려움을 겪을 아동, 청소년 긴급돌봄지원비를 초·중·고등학교까지 20만원 일괄 지급하고 코로나로 인해 폐업에 직면한 업종과 소상공인들에게 특별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전 세계가 코로나 백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도 전 국민이 점종할 수 있는 백신 확보를 위해 1조원을 확보하고 코로나 조기치료를 위해 전국 감염병 전문병원을 3개에서 5개로 추가 구축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가슴을 아프게 했던 라면 형제 등 급식비를 5000원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 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강화, 자연재해 피해 입은 농민 위한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외에도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월 24만원→30만원)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보훈수당 20만원 인상 ▲소방공무원 위험 근무

수당 14만원 인상 ▲경찰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군 사기 진작 등 국가헌신에 보답하는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이 아직은 3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어 국민의힘의 주장이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오후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이 ‘김 위원장이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지금은 정기국회 본예산 처리에 충실할 때”라며 “본예산안에 그 항목(3차 재난지원금)은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정의당, 이낙연 ‘대구·광주공항 특별법’에 “공항 표플리즘”

“전문학적 세금 투입...국토교통부는 뒷짐”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호정, 이은주, 강은미 정혜영, 배진교 의원. (공동취재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덕도 신공항에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대구·광주공항 특별법이라는 ‘당근’을

제시한 가운데 정의당이 24일 “이쯤하면 공항 ‘표플리즘’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 대표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어제 대구, 광주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여야의 조속한 협의처리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공항 사업은 전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수요 예측, 타당성 검토 등이 전제되는 속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거대양당이 경쟁하듯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을 앞 다투고 있는 지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뒷짐지고 있는 형국”이라며 “우후죽순 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타당한 것인지 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

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대구 신공항 특별법, 광주 신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 조속히 협의 처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한 특별법을 이번 주 안에 발의한다. 신공항 건설비용이 1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與 “민노총 25일 집회, 코로나 기폭제 될라...철회 강력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대규모 총파업과 집회를 예고한 민주노총을 향해 “집회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24일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찰의 ‘엄정조치’ 방침에도 민주노총은 내일 지역별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번 집회가 코로나19 대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수능을 앞두고 또 다른 위협을 만들 수 없다. 그러면 이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면서 거듭 집회 철회

회를 주문했다.

수도권 일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 관련해서 “연속되는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로 인해 많은 국민들께서 지쳐가고 있다. ‘윤이 없으면 걸리는 것’이라며 거리두기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며 “하지만 이런 생각은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안정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민 모두 철저한 방역 등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뉴시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